

태양광 집 짓고 봉사활동 “노후가 즐겁죠”

● 장성군 진원면 김영수·이민자씨 부부 주택



태양전지 모듈이 이색적인 김영수·이민자 씨 부부의 전원주택.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덕주마을에 자리한 김영수(66)·이민자(63) 씨 부부의 전원주택을 찾으면 입구에 설치된 2.5kW 규모의 태양전지 모듈이 시선을 끈다. 태양열과 태양광 설비를 갖춰 온수와 난방은 물론 전기까지 생산해 한달 전기료가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서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온수·난방은 물론 전기도 스스로 해결

은은한 황토빛갈 벽돌로 장식된 외벽은 다른 집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쪽에 한 뼘 가량의 황토를 채워 단열 효과를 높였다.

여기에 석유계열 화목(火木)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바닥에 들어가는 난방 파이프 역시 기존 구리파이프보다 열전도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했다. 하루 1시간정도 폐목 등으로 불을 지피면 실내온도를 섭씨 18~20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농업경제학과(농업경영학 전공)에서 정년 퇴임한 김교수는 그에 앞서 지난 2005년 7월 이곳에 입주했다.

김 교수 부부는 10여 년 전부터 프란치스코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인 ‘프란치스코의 집’을 오가며 자원봉사를 해왔다. 지난

98년 진원면에 들어선 ‘프란치스코의 집’은 무료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재가노인 복지(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개소)사업을 펼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다.

부인 이민자씨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잔디를 심을 때 풍기는 흠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 부부는 ‘어떻게 노후를 보람있게 보낼까?’ 고민하다 ‘노후에는 흥과 함께 생활하며 살자’로 결론을 내렸다. 마침 ‘프란치스코의 집’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업체가 IMF 한파에 개인들을 대상으로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했다. 이곳을 전원 생활지로 짐작이 두었던 김교수 부부는 98년에 부지 530㎡(160평)를 마련했고 7년 뒤 99㎡(30평) 규모의 양옥 집을 지었다. 1층에는 거실과 침실, 2층에

주택 내벽 황토로 채워 단열효과 높여

는 양면이 책으로 가득찬 김 교수의 서재가 마련돼 있다.

이곳은 광주시 경계와 불과 5km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김 교수 부부에게는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지역이어서 자원봉사와 함께 미사에도 참석할 수 있는 적지였다.

김교수 부부가 입주한 후 이 일대는 통나무집과 벽돌집, 기와집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다. 입주자들은 서로 가족을 초청하는 등 유대감을 쌓아가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

해 가고 있다.

김교수 부부는 일 주일에 한차례씩 ‘프란치스코의 집’을 통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말동무와 청소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수시로 마을 뒷산인 불태산(602.4m)을 찾는다. 부인 이씨는 이곳으로 옮겨와 생활하며 건강도 되찾았다.

농사 경험은 없었지만 텃밭에 무우, 배추, 고추, 상추, 치커리 등을

10년째 독거노인 찾아 말동무·청소

키우는 재미 역시 쏠쏠하다.

무공해 채소를 자급하고 찾아오는 친지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동해(凍害)를 막기 위해 비닐을 씌운 미니 비닐하우스에는 시금치가 파릇하다. 마당 구석에 놓인 닭장에 닭 7마리도 키운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정란은 전원생활로 얻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김교수는 전원주택 단지의 상공 조건으로 ▲접근성 ▲기반시설 ▲연료·식수문제를 꼽았다. 특히 공공용 태양광·태양열 공동발전 시설을 비롯해 공동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면 그만큼 편의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 부부는 취재를 마치고 집을 나서서 기자에게 유정란 한 꾸러미를 선사했다. 전원속에서 생활하는 김 교수 부부의 따뜻한 미소에서 ‘행복감’이 물씬 풍겨났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주택에 3kW 규모 설치 비용 2,400만원
정부에 신청하면 60% 지원 받을 수 있어

● 태양광 발전 설치 어떻게
태양열 주택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생산하고 태양광 주택은 지붕 등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이다. 소형주택에 3kW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2천100~2천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중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에너지 관리공단이 ‘태양광 10만호 사업’에 따라 매년 3~4월께 신문에 내는 공고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설비는 태양광을 모으는 집열판(모듈)과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장치, 저장용 축전지가 필요하다. 월 전기료가 3만원선인 가정집에 3kW 용량을 설치했을 경우 500원~1천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온다. 그러나 남은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 누진제에 따라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 전체 액수에서 그만큼 차감(差減)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자로 전남도나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은 280호에 달한다. 문의(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062-223-2360)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김영수·이민자 씨 부부가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다.

로덴 갤러리 RODEN GALLERY

새해맞이 특가 SALE

특별가파상 기획전

신년선물 30%~최고 50%

1544-8567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www.rodengallery.com

1544-8567